

鄭道傳의 ‘立法’에 의한 ‘牽制와 均衡’의 정치사상

辛正根*

Ⅰ. 머리말: 정도전의 생애와 학문의
蓋棺(未)事定
Ⅱ. 仁의 정치이념: 荒唐과 죽음의
정치에서 부활과 생명의 정치로

Ⅲ. 立法: 사적 지배에서 공적 지배로
Ⅳ. 輔相宰制: 견제와 균형의 정치 원리
Ⅴ. 맺음말

• 국문초록

유학자는 현실에 부족하고 왜곡된 것을 찾아내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개인은 수양을 통해,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정치를 통해 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정도전이 보기에 고려 왕조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있었다. 정도전은 仁의 생명, 立法의 공적 지배, 輔相과 宰制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상으로 설정하고서 이를 새로운 나라, 즉 조선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조선은 일국과 세계사의 관점에서 모두 독특한 나라이다. 조선의 건국 주도 세력은 경쟁에서 이기고서 패권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를 만들어 그것에 따라 나라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의 “계획도시”처럼 조선은 “계획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정도전의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 등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실천 목록을 그려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정도전은 “유교 국가”의 그림을 그리고서 그것을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 난제를 찾아냈다. 조선은 仁과 立法 그리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文治의 유교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군주와 신하가 국정을 함께/나눠서 관리하는 유교적 이상

* 성균관대 유학대학 교수

정치의 구현(君臣共治 또는 君臣分治)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정도전, 仁, 立法, 견제와 균형, 君臣分治

I. 머리말: 정도전의 생애와 학문의 蓋棺(未)事定

세상에 논란이 된 인물도 사자의 관 뚜껑을 닫으면 일단락이 된다고 한다. “蓋棺事定”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은 杜甫가 사천 成都에 있을 때 친구 아들 蘇溪가 사천 夔州 깊은 산골로 유배로 와서 실의에 빠져있자 위로하면 쓴 시에 나온다.¹⁾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하듯이 鄭道傳(1342~1398)의 인생은 개관사정도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측면에서 그러하다. 하나는 정도전이 조선의 개국 공신인 만큼 생전과 사후에도 존경받을 만하지만 제1차 왕자의 난(1398) 이후로 악인의 평가를 받았다. 고종은 경복궁 중건을 기념하여 1865년(고종 2)에 훈작을 회복하고(467년 후), 1870년에 文憲 시호를 내리고 儒宗功宗의 편액을 하사하고, 1872년에 문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474년 후).²⁾ 앞서 두보는 소혜를 위로하며 오동나무가 꺾이고 쓰러진 뒤 100년에 금슬이 된다고 했는데, 정도전은 그것보다 네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³⁾

다른 하나는 출생과 고향에 대한 논란이다. 정도전은 사후에 『태조실록』 우흥수와 정도전 卒記에 태생이 賤出로 기록되고, 16세기 『車原類雪冤記』에 의해 서얼로 간주되어 있다. 한영우는 『차원부설원기』의 異本 『車文節公遺事』에 근거해서 정도전의 비천한 출생을 다시 거론했다. 아울러 한영우는 구전 자료를 바탕으로 삼봉을 단양으로 추정하였다.⁴⁾ 이에 대해 근래 정병철은 정도전을 비천한 출생으로 간주하는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삼봉을 개성을 바라볼 수 있는 서울 삼각산으로 밝히고 있다.⁵⁾ 정도전의 천출 문제에 대해 지루한 진실 논쟁보다 고려 말 서얼 등 신분제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 이종서에 따르면 정도전 개인보다

1) 杜甫, 「君不見簡蘇溪」, “君不見道邊廢棄池。君不見前者摧折桐。百年死樹中琴瑟, 一斛舊水藏蛟龍。丈夫蓋棺事始定, 君今幸未成老翁, 何恨憔悴在山中? 深山窮谷不可處, 霹靂魑魍兼狂風。”

2)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1999, 94~101면.

3) 정재훈은 『삼봉집』이 지속적으로 간행되는 점을 들어서 정도전이 사후에 곧바로 적대적인 분위기만 있지 않았다고 본다. 士林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조선 중후기에 이르러 정도전은 심지어 奸臣의 평가를 받게 된다. 정재훈, 「정도전 연구의 회고와 새로운 사상사적 모색」, 『한국사상사학』 28, 한국사상사학회, 2007, 195면.

4) 한영우, 개정판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개정판 1997, 14~20면.

5) 정병철, 『정도전 출생의 진실과 허구』, 펴플, 2013 참조.

정도전이 포함된 시대 환경에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정도전의 사상은 『고려사』와 『태조실록』에 나타난 사적과 『삼봉집』을 통해 알 수 있다. 『삼봉집』은 우왕 말년에 처음 출간된 듯하다. 權近이 1385~1387년에 쓴 서문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1397(태조 6)년에 맏아들 鄭津(1361~1427)이 2권의 『삼봉집』을 개간했다(洪武初本). 그 뒤 1465(세조 11)년 그의 증손 鄭文炯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삼봉집』을 6책으로 중간되고, 다시 1486(성종 17)년 8책으로 증보되었다.

지금 전하는 『삼봉집』은 1791(정조 15)년에 왕명으로 다시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舊本에 빠진 陣法과 詩文을 수록했으며, 정도전의 事實에 대한 기록을 보완하고 편차를 다시 분류해 14권 7책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權近의 序와 申叔舟의 後序가 들어 있으며, 成石璘이 시운을 뽑고, 권근이 전편에 걸쳐서 批點과 교정을 하고 주석도 붙였다.⁷⁾

정도전의 복권과 생애가 논란거리였더라도 『삼봉집』이 주기적으로 재발간되었다. 『삼봉집』마저 보존되지 않았더라면 정도전의 복권은 반쪽에 그칠 것이다. 그러면 정도전 사후에 혹평이 주를 이루었지만 『삼봉집』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었을까? 『경국대전』은 『조선경국전』을 母胎로 한다. 그 사실은 14세기에도 부정할 수 없고 지금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선경국전』이 수록된 『삼봉집』이 사라진다면 『경국대전』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된다. 어머니 없는 자식의 신세를 면하려면 『삼봉집』을 보존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정도전의 『삼봉집』은 오늘날 학문 분류에 의하면 특정한 학문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학(철학)은 물론이고 문학, 역사학, 불교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군사학, 건축학, 음악학, 교육학, 서울학, 도시학, 지역학(영주), 드라마와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를 보면 철학(유학), 역사학, 정치학이 정도전 학문에 대해 세 봉우리, 즉 삼봉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전된다면 그 봉우리라 삼봉에 그치지 않고 四峰, 五峰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때에 이르면 정도전의 면모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밝혀지리라 기대된다.

6) 이종서, 「고려말의 신분 질서와 왕조 교체기 정도전의 역할」, 『역사와현실』 112, 한국역사연구회, 2019 참조.

7) 한영우, 개정판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개정판 1997, 48~49면.

정재훈은 1935~2006년까지 114편의 정도전 연구 성과를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李相栢이 『진단학보』에 실은 「삼봉인물고(1)」가 정도전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다. 1958년에는 김용국에 의해 서울 건설의 공로자로 조명되었다. 이는 경복궁 중건에 즈음하여 정도전이 복권되었듯이 1950년대 수도 서울의 건설자로 다시 재평가되고 있다. 정도전은 1970년대 이후 조선 전기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시작되었다. 흥미롭게도 정도전의 불교 비판, 즉 『佛氏雜辨』에 대한 불교계의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정도전 연구의 한 분야가 되었다.⁸⁾ 그 외 역사, 정치,⁹⁾ 철학 분야의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¹⁰⁾

사실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면 그 평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연구자마다 합당한 근거와 해석을 바탕으로 이론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정도전 연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두보가 “丈夫蓋棺事始定”이라고 읊었지만 개관사정은 始가 되면 그것으로 완결되지 않고 事未定の 도전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오히려 끊임없이 도전이 이어져서 학문적으로 논란이 되는 만큼 연구 대상은 풍부한 학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몇 편의 연구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져서 이론이 없는 事定이라면 학문이 깊다고도 할 수 없고 넓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글에서 역사학, 유학, 정치학의 논점을 간단히 적시하고 정치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역사학은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에 초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정몽주와 정도전은 각각 수성(개혁)과 혁명의 진영을 대표한다. 이방원은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鄭夢周(1338~1392)를 역적으로 보지만 즉위하는 1401(태종 1)년 그이를 복권시키며 영의정으로 추증하고 益陽府院君으로 봉하였다. 아울러 『삼강행실도』에 정몽주의 충절 항목을 실어 그의 충절을 본받게 하고자 했다. 조선 건국 이후에 정도전과 이방원의 충돌은 臣權과 王權의 대립으로 간주된다.

유학은 정도전의 유학적 특성에 초점을 둔다. 정도전이 『불씨잡변』에서 고려의 지배적 학문인 불교를 비판하고 있는 만큼 그이의 유학적 지향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유학도 춘추시대의 공자 이래로 송원 시대까지 1,900여 년의 시간이

8) 고상현, 『정도전의 불교비판을 비판한다』, 푸른역사, 2014; 2쇄 2016 참조.

9) 정치학 분야의 연구 성과 검토는 권행완, 『왕도와 패도: 정도전의 경제철학의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12 참조.

10) 정재훈, 앞의 논문 참조.

흐른 만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도현철은 『조선경국전』과 『經濟文鑑』에서 『주역』과 『서경』 등을 유교 경전을 인용하고 있지만 특히 후자에서 남송 章如愚가 편찬한 『山堂考索』(일명 『群書考索』)과 王與之가 편집한 『周禮訂義』 그리고 陳德秀의 『西山讀書記』와 원의 馬端臨이 편집한 『文獻通考』 등을 전제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도현철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문감』이 창작이 아니라 출처의 표기없이 무단 인용하고 있다고 본다. 또 당시 道學 또는 성리학과 다른 陳亮과 같은 事功學의 특색을 보여준다고 한다.¹¹⁾

손영식도 정도전이 王安石의 제도개혁론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다고 그이를 성리학자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¹²⁾ 이와 달리 정도전을 여말선초 시대에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평가하기도 한다.¹³⁾ 정도전을 성리학자로 보더라도 氣一元論의 경향에서부터 도교적 요소와 법가적 요소가 혼재되어있다는 평가도 있다.¹⁴⁾

정치학에서는 군권과 신권 또는 군주와 재상의 위상과 역할에 초점을 둔다. 이 논의에서 정도전과 이성계가 조선을 중앙집권체제로 건국하고자 했던 점에 동의한다. 다음으로 대부분 정도전은 “군주는 국가를 소유하는 특권을 갖지만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재상에게 위임하고 재상은 위임받은 권한으로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라는 체제를 구축하고 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한영우는 관료지배체제(136쪽)와 재상 중심 체제(147쪽)라고 부르고¹⁵⁾ 민병학·연명모는 재상 중심 정치라고 부르고¹⁶⁾ 도현철은 재상 정치론으로 부른다.¹⁷⁾ 박홍규·방상근은 기존의 논의를 “왕

11) 도현철, 「정도전의 사공학 수용과 정치사상」, 『한국사상사학』 21, 한국사상사학회, 2003. 도현철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정도전의 유학이 사공학 계열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주장이 더 확고하게 성립되려면, 정도전이 곳곳에서 功利를 부정하는 논의를 펼치고 있는 상반된 내용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12) 손영식, 『조선의 역사와 철학의 모험』,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14면. 결론으로 보면 손영식은 도현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3) 윤사순, 「정도전 성리학의 특징과 그 평가」, 『진단학보』 50, 진단학회, 1980, 151~152면; 정성식, 「麗末鮮初의 歷史的 轉換과 性理學的 對應에 관한 研究: 鄭圃隱과 鄭三峯의 思想的 特性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6.

14) 이원석, 「『맹자』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도전의 이해」, 『태동고전연구』 3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6, 80~81면.

15) 한영우, 개정판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개정판 1997, 132~147면.

16) 민병학·연명모, 「삼봉 정도전의 ‘재상중심정치’에 관한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15(1),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1998.

은 관념상만 절대권을 가지고 재상을 임명하는 데 그치고, 정치 운영의 실권은 재상이 쥐고 통솔해야 한다”라는 재상(신권)주의로 명명하고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를 펼친다.¹⁸⁾

이 글에서는 1차로 革命과 함께 2차로 현실(고려)을 이상(조선)으로 나아가는 維新의 여정으로 1) 立法과 2) 견제와 균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정도전은 고려(현실)에 없는 내용을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의 입법을 하고 조선(이상)을 건설하고자 했다. 나아가 정도전은 군주, 재상, 민의 권력을 어느 한쪽에 집중하지 않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至治¹⁹⁾, 治化之隆²⁰⁾, 至治之澤²¹⁾에 이르고자 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정도전이 仁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의 이상 정치를 구현하면서 재상정치가 아니라 君臣共治 또는 君臣分治를 꿈꾸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II. 仁의 정치이념: 荒唐과 죽음의 정치에서 부활과 생명의 정치로

근대는 자유·평등·박애를 바탕으로 전근대와 구분된다. 정치는 세 가지를 이념으로 삼아 현실을 더 인간다운 터전으로 만들하고자 한다. 정도전이 근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념의 차원에서 고려와 공유했다라면 유신과 혁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도전이 고려의 이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서부터 혁명을 기획하고 조선에서 유신을 추진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도전은 정치이념의 측면에서 고려(현실)와 조선(이상)을 어떻게 구별할까? 다시 말해서 정도전은 고려의 이념이 어떤 한계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여 조선을

17) 도현철, 「정도전의 정치체제 구상과 재상정치론」, 『한국사학보』 9, 고려사학회, 2000.

18) 박홍규·방상근, 「鄭道傳의 '재상주의론' 재검토」, 『대한정치학회보』 15(3), 대한정치학회, 2008.

19) 『삼봉집』 권14, 『조선경국전』 하, 「憲典 犯姦」, “爲禮以節其情欲, 爲刑以制其淫邪, 所以興至治, 而美風俗也.”

20) 『삼봉집』 권11, 『경제문감 별집』 상, 「序(權近)」, “恭惟我殿下聖德神功, 受命開國, 以興維新之治, 以建萬世之基. 而先生以性理之學, 經濟之材, 匡輔贊襄, 立經陳紀, 治化之隆, 可謂至矣.”

21) 『삼봉집』 권13, 『조선경국전』 상, 「治典 經理」, “殿下在潛邸, 親見其弊, 慨然以革私田爲己任. 蓋欲盡取境內之田屬之公家, 計民授田, 以復古者田制之正, 而當時舊家世族, 以其不便於己, 交口謗怨, 多方沮毀, 而使斯民不得蒙至治之澤, 可勝歎哉!”

어떤 이념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양한 논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고려의 이념적 지주를 담당했던 불교와 고려의 군주가 현실정치를 수행하는 실태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고자 한다.

정도전은 『불씨잡변』을 통해 불교가 현실에 대한 유신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棄倫理과 滅人類的 파멸적 상황을 초래하리라고 보았다.²²⁾ 이러한 판단은 곧 자신의 과제를 전국시대 목적과 양주를 비판했던 맹자의 수행과 결부시켰다.²³⁾ 이 과제는 단순히 학술적 비판에 한정되지 않고 闢異端의 사안으로 인식했다.²⁴⁾

특히 정도전은 불교가 인륜을 부정하여 사람의 길이 끊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불교가 사람의 길을 끊는다고 비판하는 맥락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作用是性”에 대한 비판이다. 본성은 동양과 서양의 주제이기도 하고 동양철학에서도 유불도 공통의 관심사이다. 본성은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여 사람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이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유학, 특히 성리학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理와 氣 그리고 性과 情의 도식으로 설명한다. 理는 선형적이고 보편적 가치로서 객관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理가 사람에게 작동하려면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 理가 마음에 자리하면 성이 된다.

성은 理와 연속될 뿐만 아니라 氣로 된 몸과 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 즉 성은 理의 요소를 실현하고 기의 요소를 통제하는 측면과 기의 요소가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측면에 놓여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정이 성의 통제를 받아 제멋대로 날뛰지

22) 정도전은 程顥의 말을 인용하여 불교가 인륜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삼봉집』 권5, 『불씨잡변』, 「佛氏毀棄人倫之辨」, “明道先生曰, …… 卽父子而父子在所親, 卽君臣而君臣在所嚴, 以至爲夫婦爲長幼爲朋友, 無所爲而非道, 所以不可須臾離也, 然則毀人倫去四大. …… 又曰, 言爲無不周備, 而實則外於倫理. 先生之辨盡矣.”

23) 『삼봉집』 권5, 『불씨잡변』, 「闢異端之辨」, “孟子之好辯, 所以距楊墨也, 楊墨之道不距, 聖人之道不行, 故孟子以闢楊墨爲己任. 其言曰, ‘能言距楊墨者, 亦聖人之徒也.’ 其望助於人者至矣. 墨氏兼愛, 疑於仁. 楊氏爲我, 疑於義. 其害至於無父無君, 此孟子所以闢之之力也. 若佛氏則其言高妙, 出入性命道德之中, 其惑人之甚, 又非楊墨之比也.”

24) 『삼봉집』 권5, 『불씨잡변』, 「闢異端之辨」, “以子愾庸, 不知力之不足, 而以闢異端爲己任者. 非欲上繼六聖一賢之心也, 懼世之人惑於其說, 而淪胥以陷, 人之道至於滅矣.”

25) 이필원 외 5인,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운주사, 2022 참조.

못하게 하는 敬 공부와 格物을 중시한다.²⁶⁾ 이런 연장선상에서 정도전도 인의예지의 성이 惻隱·羞惡·辭讓·是非의 情으로 드러나고 또 칠정도 통제한다고 본다. 그것이 동작과 위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²⁷⁾

이와 달리 불교는 “마음의 작용이 곧 본성이다”라는 “作用是性”을 주장한다. 원래 작용시성은 佛性이 별도의 세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상황으로 적실하게 드러난다는 의미 맥락을 갖는다. 주희도 일찍이 작용시성을 불성의 현재성 맥락이 아니라 작용 그 자체가 본성으로 본다고 이해했다. 주희는 자신의 이해에 따라 작용시성을 孟子와 논쟁을 벌였던 告子와 같다고 보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작용을 性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칼을 잡고 함부로 휘둘러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감히 性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²⁸⁾

이 비판은 정도전의 말이 아니라 주희의 말을 인용하여 불교의 “작용시성”을 비판하고 있다.²⁹⁾ 작용시성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를 올바르게 규제하거나 인도하는 본성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작용시성은 사람이 하는 일을 모두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한 인정은 선행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살인까지도 인정하게 된다. 즉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본성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으니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본성의 이름으로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고 세상은 아무런 규범과 가치도 없는 잔혹한 범죄의 현장이 될 수 있다. 불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지 않고 사람끼리 죽고 죽이는 세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불교는 더 이상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치나

26) 양승무 외 6인, 『송대 심성론』, 아르케, 1999 참조.

27) 『삼봉집』 권5, 『불씨잡변』, 「佛氏作用是性之辨」, “在心爲仁義禮智之性, 惻隱羞惡辭讓是非之情, 在頭容爲直, 在目容爲端, 在口容爲止之類. 凡所以爲當然之則, 而不可易者是理也.”

28) 『삼봉집』 권5, 『불씨잡변』, 「佛氏作用是性之辨」, “朱子亦曰, 若以作用爲性, 則人胡亂執刀殺人, 敢道性歟?”

29) 『朱子語類』 권126, 「釋氏」, “作用是性: 在目日見, 在耳目聞, 在鼻嗅香, 在口談論, 在手執捉, 在足運奔. 即告子‘生之謂性’之說也. 且如手執捉, 若執刀胡亂殺人, 亦可爲性乎?”

이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도전은 불교의 기본 교리인 윤회와 인과응보를 비판한다. 윤회는 존재와 사건이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고 어떤 존재의 결합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역설한다. 즉 윤회는 세상에 실체가 있고 사람이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본질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소유에 집착하고 불변을 추구하는 기도를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정도전은 사람이 사람다움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면 할수록 인격이 고양되고 세계가 평화롭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상에 아무런 본질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불교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논점에 대해 정도전은 주목하지 않고 윤회설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비판했다.

“사람은 죽어도 정신은 멸하지 않으므로 태어남에 따라 다시 형체를 받는다.”³⁰⁾

이에 대해 정도전은 불의 비유를 통해 윤회설이 부당하다고 밝힌다. 불이 꺼지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재는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은 생활에서 익숙하게 경험한 자연적 사실이다. 정도전은 이 비유를 사람의 죽음에 연결짓는다. 사람이 죽으면 혼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체백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때 연기와 재 또는 혼기와 체백은 어디에 보관되어 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기와 재가 재결합하여 불이 될 수 없듯이 혼기와 체백이 재결합하여 생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³¹⁾

윤회설은 세상에 실체가 없고 조건(인연)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업보에 따라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므로 무명을 깨쳐서 열반에 드는 데에 초점이 있다. 여기서 정도전은 윤회설과 열반의 관계를 잘라버리고 사람이 사후에 재결합하여 어떤 존재로 거듭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윤회설이理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정도전에 의하면 리가 없다는 것은 불교의 윤회설이 사람을 사람다움의 길로 규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30) 『삼봉집』 권5, 『불씨잡변』, 「佛氏輪廻之辨」, “佛之言曰, 人死精神不滅,, 隨復受形.”

31) 『삼봉집』 권5, 『불씨잡변』, 「佛氏輪廻之辨」, “火滅則煙氣升而歸于天, 灰燼降而歸于地, 猶人死則魂氣升于天, 體魄降于地. 火之煙氣, 卽人之魂氣. 火之灰燼, 卽人之體魄. 且火氣滅矣, 煙氣灰燼, 不復合而爲火. 則人死之後, 魂氣體魄, 亦不復合而爲物. 其理豈不明甚也哉?”

정도전은 인과응보가 길흉화복을 설명하지도 질병을 치유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한다. 대신에 음양오행의 소장이 길흉화복을 설명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정도전은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과응보가 길흉화복을 설명하지도 질병을 치유하지도 못한다는 논점을 제시하면서 불교가 황당하고 오류에 빠져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³²⁾

두 가지의 비판은 전문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중적인 차원에서 설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관심을 갖는 길흉과 질병을 가지고 인과의 부당성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 길흉화복은 사실 대중 설득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길흉화복이 인과응보라고 하면 사람의 길흉이 결정되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리학에서 사람이 기질 변화를 통해 사람다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과제와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인과응보가 荒唐謬誤하여 믿을 수 없다면 불교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이념으로서 불교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고려의 군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공양왕은 廢假立眞 또는 禍昌非王說의 논란 끝에 왕위에 올랐다. 공양왕은 허물어진 기강을 바로 세우는 등 고려의 維新을 표방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에 따르면 공양왕은 마땅히 공 있는 사람과 어진 사람에겐 정성을 다하며 충직한 말을 받아들이고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야 한다.

하지만 공양왕은 오직 姻婭간의 감정이 섞인 호소와 婦寺들의 사사로운 간청만 그저 들어 주고 신임하였으며, 元勳들을 소외하여 꺼리고 충성되고 선량한 사람들을 모함하여 해치며, 정사가 悖亂하였다. 이에 人心이 저절로 이탈되고 天心마저 저절로 떠나고, 존귀한 나라 임금으로서 匹夫처럼 달아나게 되어, 왕씨의 제사가 사라지게 되었다.³³⁾

32) 『삼봉집』 권5, 『불씨잡변』, 「佛氏因果之辨」, “信如佛氏之說, 則人之禍福疾病, 無與於陰陽五行, 而皆出於因果之報應. 何無一人捨吾儒所謂陰陽五行, 而以佛氏所說因果報應, 定人禍福, 診人疾病歟? 其說荒唐謬誤無足取信如此, 子尙惑其說歟?”

33) 『삼봉집』 권12, 『경계문감 별집』 하, 「恭讓王」, “是宜推誠勳賢, 納忠容諫, 相與共圖維新之治也. 何乃惟姻婭挾憾之訴, 婦寺徇私之請, 是聽是信, 疏忌元勳, 陷害忠良, 政事悖亂, 人心自離, 天命自去, 以國君之尊, 爲匹夫之奔, 而王氏之祀忽諸, 悲夫!”

이렇게 보면 고려는 불교의 이념적 지향만이 아니라 군주가 유신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려 후기가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죽이는 정치가 되고, 이해를 쫓아가느라 사람다움의 가치를 돌아보지 않아 생명의 존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정도전은 부도덕과 황당무계 그리고 무기력으로 유신(부활)을 잃어버린 고려(현실, 과거)를 대신하여 생명이 존중되는 조선(이상, 미래)을 세우고자 했다. 그 이상은 『조선경국전』의 제일 첫머리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성인의 큰 보배는 位요, 천지의 큰 덕은 생명이니, 무엇으로 위를 지킬 것인가? 바로 仁이다. … 군주는 천지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아서 不忍人之政을 행하여,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기뻐해서 군주를 마치 자기 부모처럼 우러러볼 수 있게 한다면, 오래도록 安富·尊榮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요, 危亡·覆墜의患을 끝내 갖지 않게 될 것이다. 仁으로써 位를 지키는 것이 어찌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³⁴⁾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을 『주역』 「계사전」 下의 인용으로 시작하면서 차례로 주희의 「仁說」³⁵⁾과 『孟子』³⁶⁾를 인용하면서 논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핵심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마음”과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이다. 이는 다시 仁으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仁은 바로 고려(과거, 현실)에 없었는데 조선(현재, 이상)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도전은 정치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만물의 생명을 끊임없이 낳고 낳아 생명이 충일한 세상을 이룩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불교가 아니라 유학이 담당할 수 있는 과제였다.

실제로 이성계는 즉위한 뒤에 郵驛에게 토지를 더 지급하여 고통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정도전은 이러한 조치가 仁과 義를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실현한 사례로

34) 『삼봉집』 권13, 『조선경국전』 상, 「正寶位」, “易曰, 聖人之大寶曰位, 天地之大德曰生. 何以守位? 曰仁. … 人君以天地生物之心爲心, 行不忍人之政, 使天下四境之人, 皆悅而仰之若父母, 則長享安富尊榮之樂, 而無危亡覆墜之患矣. 守位以仁, 不亦宜乎?”

35) 『朱子大全』 권67, 「仁說」, “天地以生物爲心者也. 而人物之生, 又各得夫天地之心, 以爲心者也.”

36) 『孟子』, 「공손추」 상 6,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 可運於掌上.”

평가하고 있다.³⁷⁾

Ⅲ. 立法: 사적 지배에서 공적 지배로

정도전은 고려 말기에 우역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원래 우역은 사신을 대접하여 위로는 중국과 통교하고 아래로는 政令을 선포하는 통로이므로 국가에서 급선무로 삼아야 할 일이다. 고려 말기에는 정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자 그만큼 使行이 빈번하여 인마의 왕래가 끊임이 없었으며, 심지어 私門의 饋獻하는 일과 私行의 왕래하는 일까지도 모두 역로를 경유하게 되어 침해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많았다. 이 때문에 驛吏는 맡은 일을 견딜 수가 없어 거의 다 도망하게 되었다.³⁸⁾

고려 말기 정령이 통일되지 않은 틈에 사적인 일마저 우역의 사무로 끼어들게 되었다. 즉 권문세가가 공적 우역제도를 사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우역민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우역민은 도망가는 방법으로 고통을 벗어났다. 결국 우역민이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했던 것이다.³⁹⁾

사적 지배 양상은 고려 말기의 우역 제도에만 해당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14세기에 이르면 국정 체제 자체에 취약성을 드러냈다. 예컨대 정치체제는 中書門下省의 宰府와 郎舍, 中樞院의 樞府와 承宣房 등 상하 이중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제도의 경우 南道 지역과 兩界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으로 다원화되고 통치 내용도 지역에 따라 달랐다. 이에 따라 통일적인 지배구조와 권력구조를 이루지 못하여 관료의 자적인 지배와 사원이나 토호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⁴⁰⁾ 이를 “이중체제”

37) 『삼봉집』 권14, 『조선경국전』 하, 「憲典 郵驛」, “卽位以來, 尤致存恤, 加給其田, 憫念郵民既深且切, 經國規模, 亦甚宏遠, 仁之至而義之盡也.”

38) 『삼봉집』 권14, 『조선경국전』 하, 「憲典 郵驛」, “置郵, 所以謹廚傳待使命. 上以通朝聘, 下以宣政令, 有國家者所當爲急者也. 前朝之季, 政出多門, 使命繁數, 前後絡繹, 以至私門之饋獻, 私行之往返, 皆由驛路, 侵擾百端. 吏不能堪, 逋亡殆盡.”

39) 『삼봉집』 권14, 『조선경국전』 하, 「憲典 郵驛」에 따르면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이후에 국정을 장악하고서 “遏私獻之運輸, 禁私行之供費”처럼 우역의 사적 이용을 금지시켜 우역민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해결했다.

40)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연구』, 일조각, 1999, 129~130면. 14세기의 이중체제와 사적

또는 “다중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나라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4세기에 이르면 고려 사회는 사적 지배와 자의적인 침탈이 만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위에서 살펴본 대로 “政出多門”에서 우역제도가 망가지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도전은 이러한 문제를 “立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입법은 근대 정치의 소산이므로 조선에 해당되는지 반신반의할 수 있다. 입법 개념은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등장했다. 예컨대 『순자』와 『사기』에 벌써 입법 개념이 쓰이고 있다.⁴¹⁾ 물론 입법이 형벌 제도를 갖추는 맥락으로 쓰이기도 한다.⁴²⁾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도전이 입법 사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할 바가 없다.

정도전의 입법 사고는 이성계가 『大明律』을 번역하여 반포하도록 하는 조치와 맞닿아 있다.

“또 어리석은 백성이 법을 잘 모르고 禁法을 어기는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주무 관청에 명하여 『大明律』을 방언(이두)으로 번역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치게 하였고, 무릇 처단과 판결에 있어서는 모두 이 법률에 따르게 하였으니, 위로는 황제의 규범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백성들이 금법을 알아서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매, 형은 방치되어 쓰이지 않게 될 날을 볼 것이다. 신은 聖心을 우러러 몸 받아 감히 어질고 밝은 덕으로써 형을 적용하는 근본을 삼으면서 憲典의 총서를 짓는다.”⁴³⁾

“지금 우리 전하는 덕이 仁에서 돈독하고 禮가 순서를 얻었으니, 정치하는 근본을 체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議刑이나 斷獄으로 정치를 보좌하는 것은 한결같이 『대명률』에 의거하였다. 이에 신은 『대명률』의 총목을 참용하여 憲典의 여러 편을 지었고, 그 대략을 서술하여 後序를 짓는다.”⁴⁴⁾

지배는 행정 구조의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정비와 현실의 운용에서 빚어지는 혼선과 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

41) 『荀子』, 「議兵」, “立法施令, 莫不顺比.” 『史記』 「律書」: “王者制事立法, 物度軌則, 臺稟於六律.”

42) 『書經』, 「呂刑」, “惟作五虐之刑曰法.” 『漢書』 「刑法志」: “制禮作教, 立法设刑.”

43) 『삼봉집』 권14, 『조선경국전』 하, 「憲典 總序」, “又慮愚民無知觸禁, 爰命攸司將, 大明律譯以方言, 使衆易曉. 凡所斷決, 皆用此律. 所以上奉帝範, 下重民命也. 將見斯民知禁而不犯, 刑措而不用矣. 臣仰體聖心, 敢以仁明之德, 爲用刑之本, 作憲典摠序.”

이성계는 먼저 백성들이 법을 몰라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이성계는 『대명률』을 방언(한글)으로 번역하여 백성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서 이성계는 형벌을 논의하거나 송사를 처리할 때 모두 『대명률』에 의거하도록 했다. 이것은 형벌과 송사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포된 『대명률』에 따라 판결한다는 말이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의지에 부합하게끔 『대명률』에 따라 『조선경국전』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입법에 따라 사적 지배를 벗어나서 공적 지배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세금은 백성에게 거두어들여 국정을 운영하는 재원이다.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부당한 세금 징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전조 말기에는 백성들의 재산을 다스릴 줄 몰랐다. 백성을 휴양시키는 방도를 잃자 인구가 번식하지 못하였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도를 갖지 못하자 더러는 굶주림과 추위에 죽기도 하였다. 호구는 나날이 줄어들고 남은 사람들은 부역의 번거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豪富의 집에 껴미어 들어가기도 하고 권세가에 의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혹은 공업이나 상업을 하기도 하고 혹은 도망하여 중이 되기도 해서 전인구의 10분의 5~6은 호적에서 이미 빠져나갔다.”⁴⁵⁾

정도전은 맹자가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의 재산을 다스린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고려(현실)의 실상을 비판하고 있다. 맹자가 恒産이 확보되지 않으면 백성이 恒心을 지닐 수 없다고 말했다.⁴⁶⁾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려는 맹자가 말한 것과 정반대로 진행되어 백성들은 굶주림을 피하지 못하여 권세가의 집에 의탁하기도 하

44) 『삼봉집』 권14, 『조선경국전』 하, 「憲典 後序」, “今我殿下, 德敦乎仁, 禮得其序, 可謂得爲治之本矣. 其議刑斷獄, 以輔其治者, 一以大明律爲據, 故臣用其總目作憲典諸篇, 又述其略, 作後序云.”

45) 『삼봉집』 권13, 『조선경국전』 상, 「治典 版籍」, “前朝之季, 不知制民之產, 休養失其道, 而生齒不息, 安集無其方, 而或死於飢寒. 戶口日就於耗損, 其有見存者, 不勝賦役之煩, 折而入於豪富之家, 托於權要之勢. 或作工商, 或逃浮圖, 固已失其十五六.”

46) 『맹자』, 「양혜왕」 상 7,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 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是故明君制民之産,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

고 상공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도망하기도 했다. 국가가 향산을 마련하지 못하니 백성들이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서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는 백성을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죽도록 내버려 두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도전에 따르면 이성계는 처음 즉위하자 유사에게 명령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도를 강구하게 하고, 중외에 교서를 내리어 백성의 수효를 등록하게 하여 가호가 얼마, 인구가 얼마인가를 파악하게 하니, 정치하는 근본을 안다고 할 만하다.⁴⁷⁾ 호구 파악은 국정을 예측이 가능한 방식을 운용하는 출발이다. 나아가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과세를 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예측 불가능한 고려의 정치를 예측이 가능한 조선의 정치로 유신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고려(현실)에 부재한 “立法” 사고와 입법 통치를 시도하고 실행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사고에는 명확하게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정도전은 立法의 근원을 유교의 핵심 가치인 仁義와 연결짓는다. 나아가 이성계의 행위와 정책 동기도 仁義와 결부시켜 논의하고 있다. 『대명률』의 번역과 반포를 “德이 仁에서 돈독하고 예가 순서를 얻었다”라는 이성계의 덕과 결부시키고 있다. 이는 法源 또는 법의 정신이 유교에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도전은 입법 사고를 하고 있지만 예와 법 또는 덕과 형의 관계에서 禮德이 法刑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덕으로써 형을 적용하는 근본을 삼는다”라는 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군주는 반드시 민생을 보호하는 일로 급무를 삼아야 한다. 하지만 민생이 많으므로 번고가 매우 빈번하다. 예컨대 간교한 자는 간사한 짓을 행하고 억센 무리는 포악한 행동을 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자들은 도둑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도전이 입법 사고를 가진 만큼 그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다.⁴⁸⁾ 즉 詳法嚴禁, 즉 법을 상세히 하고 禁戒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⁴⁹⁾

47) 『삼봉집』 권13, 『조선경국전』 상, 「治典 版籍」, “惟我殿下初卽位, 命有司講求便民之方, 教于中外, 籍其數, 得戶幾口幾, 可謂知爲政之本矣.”

48) 『삼봉집』 권14, 『조선경국전』 하, 「憲典 戶役」, “夫民之所緣以爲姦者, 其事雖多, 上之所令以立法者, 其大節有七. 曰戶役, 民力之所出, 不明則有隱漏之患. 曰田宅, 民業之所本, 不嚴則有兼并之事. 曰婚姻, 人道之所重, 不謹則有淫僻之行. 曰倉庫, 民食之所在, 不備則有虛耗之弊. 曰課程, 曰錢債, 曰市廛, 皆民財之所關, 不可以不察者也. 故詳其法而嚴其禁.”

만약 정도전이 입법 만능론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입법에 의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도전은 입법 만능론자가 아니었다.

“반드시 법령을 엄히 해서 위엄을 보이고 형벌을 밝혀서 징계한 다음에야 백성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화란이 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비록 德이나 禮로써 다스리는 효과만은 못하나, 역시 성인도 부득이 화란의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⁵⁰⁾

정도전은 법령과 형벌이 화란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백성들이 위엄과 징계를 두려워하게 되면 법령과 형벌을 두려워하여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도전은 법령과 형벌이 德禮의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만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법령과 형벌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즉 정도전은 德禮가 법령과 형벌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德禮 우위의 사고는 『논어』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공자는 행정과 형법을 덕과 예에 대비했다. 사람을 행정과 형벌을 통치하면 백성들은 법망을 피하려고 할 뿐 부끄러움을 모르지만 덕과 예로 이끌어 가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스스로 바로잡는다고 보기 때문이다.⁵¹⁾ 공자의 이러한 구분이 정도전에서 덕에 우위의 사고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도전은 예방의 차원에서 법령과 형벌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덕예에 따라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입법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위에서 입법이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면 두 번째 의미는 특징이 모범을 보여서 다른 사람이 그것에 의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자가 法治의 의미를 나타낸다면 후자는 人治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입법이 서로 다른 맥락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49) 정도전의 이러한 특성은 명 제국 초기 方孝孺(1357~1402)의 立法觀과 상당히 비슷하다. 『方孝孺集』 상 권2, 「잡저 心應論」 6, “古之聖人既行仁義之政矣, 以爲未足以盡天下之變, 於是推仁義而寓之於法, 使吾之法行, 而仁義亦陰行其中, 故望吾之法, 知其可畏而不犯. 服其公.” 방효유의 사상은 이진명, 「방효유 유학사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22 참조.

50) 『삼봉집』 권14, 『조선경국전』 하, 「憲典 戶役」, “故必嚴令以威之, 明刑以懲之, 然後民有所畏而禍亂息矣. 此雖不及德禮之效, 亦聖人不得已而爲防者也.”

51) 『논어』, 「위정」,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입법이 모범의 제시와 관련이 있을까? 이는 法이 일찍이 법률의 맥락 이외에 모범, 본보기의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례는 『주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²⁾ 정도전은 이러한 의미 맥락을 충실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입법의 취지와 이념을 말하거나 입법의 사례를 열거할 때마다 이성계를 끌어들이고 있다. 모든 것이 이성계의 뛰어난 인격과 관련이 있다는 투이다.

“주상 전하는 天理와 인심에 순응하여 보위를 신속히 바꾸었으니, 仁은 心德의 온전한 것이 되고 사랑은 바로 仁의 발현임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仁을 체득하고, 사랑을 미루어서 인민에게 미쳤으니, 仁의 본체가 확립되고 仁의 작용이 실행해진 것이다. 아! 보위를 보유하여 천만세에 길이 전하여질 것을 누가 믿지 않으랴!”⁵³⁾

정도전은 이성계를 仁의 화신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성계를 『조선경국전』의 첫머리만이 아니라 곳곳에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성계가 바로 “祖宗之法”의 권위와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후대에 이성계의 조종지법, 즉 입법을 훼손하지 않고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경국대전』이 입법의 조문과 항목으로 되어있는 경우와 그것이 이성계의 인격과 결부되어 있다는 경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태조(이성계) 6년 2월 11일 甲午 3번째 기사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서두에 도평의사사에서 前朝 각도 軍民의 戶數를 기록한 자료가 없어서, 군인을 차출할 때 함부로 수효를 배정해 놓고는 억지로 그 수효의 충당을 강요하여 폐단이 많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어서 조선에서도 “각 고을의 수령들이 그 立法의 근본정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릇 군사에 관계되거나 徒役 등의 일만 만나게 되면, 이들을 다 추려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피해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⁵⁴⁾ 보고 뒤에

52) 『周易』, 「계사전」 상 7, “知崇禮卑, 崇效天, 卑法地.”

53) 『삼봉집』 권13, 『조선경국전』 상, 「正寶位」, “恭惟主上殿下, 順天應人, 驟正寶位, 知仁爲心德之全, 愛乃仁之所發, 於是正其心以體乎仁, 推其愛以及於人, 仁之體立而仁之用行矣. 嗚呼, 保有其位, 以延千萬世之傳, 詎不信歟!”

54) 『太祖實錄』 11권, 태조 6년 2월 11일: “前朝之季, 各道軍民戶數無籍, 凡抄軍時, 妄意定數, 勒令充數, 作弊不小. … 各道戶籍, 率居人口, 已竝載錄, 各官守令, 不顧立法大體, 凡遇軍情及徒役事, 盡數抄出, 使不得農業, 以致凋瘵”

“上從之”로 끝난다. 정도전이 말한 “입법”은 조선의 현실을 규제하는 원리로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V. 輔相宰制의 君臣分治: 견제와 균형의 정치 원리

仁의 생명 중시와 立法의 공적 지배가 현실에서 저절로 작동하지 않는다. 仁과 立法의 정치는 권력의 행사를 통해 현실에서 드러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권력 행사와 관련해서 정도전이 재상 중심 체제 또는 재상 정치를 지향했다고 본다.

이러한 재상 정치론에 따르면 “왕권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이고 개념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절대권을 가진 전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⁵⁵⁾ 왕은 오늘날 일본의 “상징 천황제”처럼 “상징왕제”가 된다.⁵⁶⁾ 이에 반해 재상은 최고정책결정권자로서 권한, 최고정책집행자로서 권한을 갖는다.⁵⁷⁾ 이 재상은 아마 오늘날 의원내각제의 수상에 해당될 듯하다. 정도전의 왕과 재상의 관계는 오늘날 영국의 국왕과 수상의 관계에 비견할 만하다.

『정도전』이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에서 재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상 정치론”도 일견 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정도전은 고려(현실)에 내재된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인과 입법의 정치를 조선(이상)에 실현하고자 했다. 즉 고려가 어떤 점에서 폐단을 드러냈는지 반성을 통해서 조선이 어떻게 나아갈 바를 정하게 된다.

정도전은 궁실을 지키는 衛兵 제도를 정비하면서 “舊習”, “舊弊”, “深弊”, “積弊”를 혁신하자고 주장하면서 “維新”, “維新之治”라는 말을 구사하고 있다.

“이제 전하께서 천명을 받아 更始하고 百事가 維新되었지만 오로지 府衛의 법만큼은 舊習을 因循하여 그 폐단 또한 여전하므로 신은 아주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 이제 전하께서 하늘의 명을 받아 정사를 밝게 펼쳐서, 마땅

55) 한영우, 개정판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개정판 1997, 134면.

56) 가라하라 히데히코 저, 유지아 역, 『상징천황제와 황위 계승』, 경인문화사, 2020 참조.

57) 한영우, 개정판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개정판 1997, 137~141면.

히 구폐를 혁파하고 나라의 근본을 무겁게 하여 天災가 없어지게 하여 維新의 다스림에 이르도록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폐단을 개혁하는 것은 剛명한 임금과 英烈한 보좌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전하께서 하늘의 명을 받아 하시는 바가 赫然하시니, 마땅히 舊弊를 혁파하고 나라의 형세를 무겁게 하여 維新의 다스림에 이르게 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견문이 옛 것에 익숙하여 쌓이고 쌓인 폐단을 혁파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⁵⁸⁾

정도전이 혁명을 통해 고려를 부정하고 조선을 건국했다. 하지만 정도전의 정치는 혁명 그 자체가 아니라 維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구폐와 적폐 등을 깡그리 뜯어고쳐서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했다. 조선은 그렇게 등장해야 하는 새로운 나라였다.

고려의 권력 행사에서 국왕만이 문제였다고 하면 재상 정치론은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의 문제는 군주에게만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권력 행사와 정치 행위에 관련되는 다양한 요소가 각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도전이 재상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재상 정치론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국왕을 대체한 재상으로 재상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도전의 문제의식은 군주와 신하(재상), 군주와 백성, 관료와 백성 등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새로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서경』에서 제기한 이래로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에 의해 공유된 “聖君賢相”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성균현상의 정치는 달리 말하면 군주와 신하가 욕망이 아니라 도의의 정치를 위해 국정을 함께/나눠서 관리하는 君臣共治 또는 君臣分治라고 할 수 있다.⁵⁹⁾

“상호 견제와 균형” 개념은 『삼봉집』에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정도전은 輔相과

58) 『삼봉집』 권10, 『경제문감』 하, 「衛兵」, “今殿下受命更始, 庶事維新, 唯府衛之法因循舊習, 弊亦如前, 臣竊惜之. …… 今殿下受命, 赫然有爲, 宜革舊弊, 重國本弭天災, 以致維新之治可也. 然革深弊者, 非剛明之主, 英烈之佐, 不能也. … 殿下受命, 赫然有爲, 宜革舊弊, 以重國勢, 以致維新之治, 然人見聞習熟, 積弊難革.”

59) 정도전도 『경제문감』에서 유학의 이상적 정치체제를 수용해서 군신공치 또는 군신분치의 계보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경』과 『사기』 「五帝本紀」의 내용을 많이 원용하고 있다. 유학의 이상적 정치체제를 군신분치/군신공치로 보는 논의는 신정근, 「유교 지식인의 ‘사회’ 개선의 의의」, 『동양철학연구』 26, 동양철학연구회, 2001;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질서 위의 조화: 군신공치의 이념과 실제」(2023.10.6.) 학술대회 자료집 참조.

宰制로 총재(재상)의 특성과 역할을 설명하는데, 바로 여기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취지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총재는 위로 군부를 받들고 밑으로 백관을 통솔하며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大中之 지경에 들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相이라 하니, 즉 輔相한다는 뜻이다. 백관은 제각기 직책이 다르고 만민은 제각기 직업이 다르니, 재상은 공평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기 그 적의함을 잃지 않도록 하고, 고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기 그 처소를 얻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宰라 하니, 즉 宰制한다는 뜻이다.”⁶⁰⁾

정도전에 따르면 총재(재상)는 군주 아래에 백관과 만민의 위에 있는 중간적 위치에 있다. 모든 군주가 현명하고 탁월하다면 정도전은 권력 행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다. 군주의 자질에 昏明強弱의 차이가 있다. 많은 연구에서 군주의 혼명강약이 바로 재상정치 of 근거가 된다고 본다. 군주의 혼명강약이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므로 재상이 전권을 행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총재가 인주의 아름다운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大中之 지경에 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정도전은 『경제문감』에서 재상의 자격과 역할을 두루 열거하고 있다. 그중에 자신을 바르게 한다는 正己,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格君, 임금을 이끌어 유교의 도리에 합당하게 한다는 引君當道,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른 것은 바꾼다는 獻可替否, 먼저 자신을 희생한다는 先遺其身 등이 있다. 특히 마지막 先遺其身에서 무사를 강조하며 천하국가를 자신의 마음으로 삼으라고 말한다.”⁶¹⁾ 재상이 이러한 이상을 모두 갖춘다면 聖賢이나 “신적 인간”과 비슷하다.

60) 『삼봉집』 권13, 『조선경국전』 상, 「治典 總序」, “上以承君父, 下以統百官治萬民, 厥職大矣. 且人主之材, 有昏明強弱之不同, 順其美而匡其惡, 獻其可而替其否, 以納於大中之域, 故曰相也, 輔相之義也. 百官異職, 萬民異業, 平之使不失其宜, 均之使各得其所, 故曰宰也, 宰制之義也.”

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재상이 그래야 한다는 당위이자 이상이다. 재상도 군주의 昏明強弱과 마찬가지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재상의 일을 맡기는 데는 반드시 재상의 재목이 있으니, 그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혹은 柔弱하여 제압되기 쉬우며, 혹은 아첨하고 간사한 자가 아첨하여 나오거나, 혹은 외척과 결탁하고, 혹은 中人(환관이나 궁녀)에게 붙는다. 못사람이 우러러보는 지위에 거하고 治道를 논의하는 직책에 있으면, 간소한 자는 권세를 부려 복록을 지으며, 벼슬을 팔고 법을 팔아 천하를 어지럽게 하며, 유약한 자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따르기만 하고 입을 다물어 말을 하지 않고 은총만을 굳건하게 하니, 크게는 사직을 위태롭게 하고 작게는 기강을 무너뜨리니, 재상의 임무를 어찌 가벼이 주겠는가?”⁶²⁾

재상도 군주와 마찬가지로 姦邪와 柔弱의 단점이 있어서 “柔弱易制, 佞邪諂進, 結托外戚, 附麗中人”의 문제(현실)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앞서 「相業」에서 살펴본 재상관과 크게 다르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면 오히려 재상에 전권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재상이 구폐, 적폐가 되어 유신의 과제가 된다.

재상이 많은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한계도 적지 않다. 재상이 이상과 당위에 따라 獻可替否를 한다고 해도 군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인주는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인신이 인주를 바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智力으로 버티는 것도 불가하고, 口舌로 다투는 것도 불가하다. 오직 자신의 정성을 쌓아서 인주를 감동시켜야 하고, 자기 자신을 바루고서 인주를 바루어야 할 뿐이다. 그 많은 백관과 만민을 총재 혼자서 다스린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일일이 귀에 대고 가르치는 것도 불가한 일이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깨우쳐 준다는 것도 불가한 일이다. 오직 어진 사람과 어질지 못한 사

61) 『삼봉집』 권9, 『경제문감』 상, 「相業」, “文中子, 房玄齡問事君之道, 子曰, 無私. 又問正主庇民之道, 曰先遺其身. 夫能遺其身, 然後能無私. 無私, 然後能至公. 至公, 然後能以天下國家爲心.”

62) 『삼봉집』 권9, 『경제문감』 상, 「宰相之職」, “任宰相之事, 必有宰相之材. 不求其人, 或柔弱易制, 或佞邪諂進, 或結托外戚, 或附麗中人. 便居具瞻之地, 處論道之職, 姦邪者, 則立權作福, 鬻官賣法, 以亂天下. 柔弱者, 則承意順旨, 循默不言, 以固恩寵. 大則危社稷, 小則隳紀綱. 宰相之任, 何可輕授?”

람을 구별하여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면 여러 가지 공적이 이루어지고 백관이 다스려질 것이며, 온당한 일과 온당치 못한 일을 살피서 이를 구분하여 처리하면 만물이 제 자리를 얻게 되고 만민이 편안하게 될 것이다.”⁶³⁾

정도전은 재상의 역할 중에 하나로 格君을 꼽았다. 하지만 정도전은 신하가 군주를 바로잡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한다. 지식을 앞세워도 논쟁을 벌여도 군주가 수용하지 않으면 格君도 獻可替否도 불가능하다. 백관과 만민도 일일이 가르칠 수도 없고 집집마다 찾아다닐 수도 없다. 인사를 잘하면 일 처리를 합당하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다. 이는 결국 재상의 인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재상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셈이다. 이는 시스템 정치라고 할 수 있지 결코 재상 중심 체제 또는 재상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시 『治典 總序』로 돌아가 보자. 보상은 군주와 총재(재상)의 관계 정립이고, 재제는 총재와 백관 및 만민의 관계 정립이다. 여기서 보상은 총재가 군주로 하여금 유교의 도리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측면을 말한다. 군주가 부당한 길로 나아가면 견제하고 정당한 길로 나아가면 동조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재제는 재상이 백관과 만민으로 하여금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하도록 규제하는 측면을 말한다. 백관과 만민이 자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견제하고 충실히 하면 격려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상과 재제는 군주와 재상, 재상과 백관 및 만민 사이를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도전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군주와 신하(재상)의 관계가 어떻게 잘 작동하느냐고 보고 있을까? 『서경』과 『사기』에 보이듯 군신이 모두 성인인 시절도 있고 군신이 모두 현인인 시절도 있고 군주가 신하에 미치지 못하는 시절도 있고 보통의 군주가 사람을 얻느냐에 따라 혼란한 시절도 있었다. 군주와 신하의 조합이 가능한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은 君臣이 서로 어울리는 파트너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治典 宰相年表』). 이어서 정도전은 자신과 이성계의

63) 『삼봉집』 권6, 『조선경국전』 상, 『治典 總序』, “夫以人主之尊, 人臣仰而正之, 難矣哉! 以智力持之不可也, 以口舌爭之不可也, 惟積其誠而動之, 正其已而格之耳. 百官萬民之衆, 而以一身治之, 其亦難矣. 提耳而教之不可也, 家喻而戶曉之不可也. 惟知人之賢不肖而進退之, 庶績興而百官治. 審事之當否而區處之, 物得其所而萬民安.”

관계를 明君과 良相의 相遇, 즉 君臣共治 또는 君臣分治로 본다. 두 사람이 서로 유신지정을 이끌고 있으므로 천 년이나 백 년에 한 번 맞이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 즉 두 사람이 현실에서 이상을 창조하는 역사를 수행한다고 생각한 듯하다.⁶⁴⁾

마지막으로 군주와 백성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도전은 천자와 제후가 최고의 부귀를 누리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본다.

“天子는 천하의 奉貢을 누리고, 제후는 境內의 奉貢을 누리니, 모두 부귀가 지극한 사람들이다. 현능한 사람은 지혜를 바치고, 호걸은 힘을 바치며, 백성은 분주하여 각기 맡은 역할에 종사하되, 오직 인군의 명령에만 복종할 뿐이다.”⁶⁵⁾

군주는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군주는 백성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을까?

“인군의 지위는 높기로 말하면 높고, 귀하기로 말하면 귀하다. 그러나 천하는 지극히 넓고 만민은 지극히 많다. 한 번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마 크게 염려할 일이 생기게 되리라. 下民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복종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배반하게 된다. 그들이 배반하고 따르는 그 간격은 털끝만큼의 차이도 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사로운 뜻을 품고서 구차하게 얻는 것이 아니요, 도를 어기어 명예를 구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 얻는 방법 역시 仁일 뿐이다.”⁶⁶⁾

64) 『삼봉집』 권13, 『조선경국전』 상, 「治典 宰相年表」, “方今明良相遇, 誠意交孚, 相與共圖維新之政, 千百年之一盛際也.”

65) 『삼봉집』 권13, 『조선경국전』 상, 「정보위」, “天子享天下之奉, 諸侯享境內之奉, 皆富貴之至也. 賢能效其智, 豪傑效其力, 民庶奔走, 各服其役, 惟人君之命是從焉.”

66) 『삼봉집』 권13, 『조선경국전』 상, 「정보위」, “人君之位, 尊則尊矣, 貴則貴矣. 然天下至廣也, 萬民至衆也, 一有不得其心, 則蓋有大可慮者存焉. 下民至弱也, 不可以力劫之也. 至愚也, 不可以智欺之也. 得其心則服之, 不得其心則去之. 去就之間, 不容毫髮焉. 然所謂得其心者, 非以私意苟且而爲之也, 非以違道干譽而致之也, 亦曰仁而已矣.”

군주가 지위와 권력의 측면에서 백성에 비해 비대칭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주가 민심을 얻지 못하면 존귀한 지위와 무상의 권력도 지탱할 수가 없다. 仁이야말로 백성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일 뿐이다. 즉 군주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정치를 해야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염려할 일(大可慮者)”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군주가 민심과 멀어지는 쪽을 견제하여 민심을 얻어서 군주와 백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와 백성 사이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군주가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터득하면 백성은 더 이상 至弱과 至愚의 존재가 아니다.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하므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군주의 하늘이 되는 것이다.” 정도전은 이러한 사고를 『周禮』에 군주가 호적을 보고받을 때 절하면서 받는다는 내용에서 끌어내고 있다.⁶⁷⁾ 이것이 바로 愛民이고 이 애민은 다시 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V. 맺음말

유학은 현실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찾아내고 미래의 이상에 실현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수양을 통해, 공동체로 보면 정치를 통해 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정도전은 고려의 현실에 없어 사람을 살리는 못하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정도전은 생명의 仁, 立法의 공적 지배, 상호 견제와 균형의 輔相과 宰制를 이상으로 설정하고자 새로운 나라, 즉 조선에 실현하고자 했다.

조선은 세계사적으로 특이한 나라이다. 경쟁에서 이기고서 패권을 차지한 나라만이 아니라 설계도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운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의 “계획도시”처럼 조선은 “계획국가”라고 할 수 있다.⁶⁸⁾ 정도전의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실천 목록을 그려낸 설계도라고 할

67) 『삼봉집』 권13, 『조선경국전』 상, 「治典 版籍」, “蓋君依於國, 國依於民. 民者, 國之本, 而君之天, 故周禮獻民數於王, 王拜而受之, 所以重其天也. 爲人君者知此義, 則其所以愛民者, 不可不至矣.”

68) 신정근, 「정도전의 “유학다움” 요구와 조선 개국의 정당성 선언」, 성균관영주청년유도회 주최, “삼봉 정도전의 시대를 읽다” 2023년도 제2회 유교문화 인물 학술회 자료집, 19~47면 참조.

수 있다. 정도전은 유교 국가의 그림을 그리고서 그것을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 난제를 찾아냈다. 그것은 기존의 재상 정치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조선은 仁과 立法 그리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文治의 유교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군주와 신하가 권력과 욕망에 도취되지 않고 도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을 함께/나눠서 관리하는 군신분치 또는 군신공치라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23.10.30

심사일: 2023.11.20

게재확정일: 2023.12.26

참고문헌

『周易』

『書經』

『論語』

『孟子』

『荀子』

『史記』

『漢書』

朱熹, 黎靖德 編, 王星賢 點校, 『朱子語類』, 北京: 中華書局, 1994

『太祖實錄』, 한국고전종합DB

『三峯集』, 한국고전종합DB

方孝孺, 徐光大 點校, 『方孝孺集』, 浙江古籍出版社, 2013

가라하라 히데히코 저, 유지아 역, 『상징천황제와 황위 계승』, 경인문화사, 2020

고상현, 『정도전의 불교비판을 비판한다』, 푸른역사, 2014; 2쇄 2016

권행완, 『왕도와 패도: 정도전의 경세철학의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12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연구』, 일조각, 1999

손영식, 『조선의 역사와 철학의 모험』,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양승무 외 6인, 『송대 심성론』, 아르케, 1999

이필원 외 5인,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운주사, 2022

정병철, 『정도전 출생의 진실과 허구』, 퍼플, 2013

한영우, 개정판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개정판 1997

_____,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1999

도현철, 「정도전의 정치체제 구상과 재상정치론」, 『한국사학보』 9, 고려사학회, 2000

_____, 「정도전의 사공학 수용과 정치사상」, 『한국사상사학』 21, 한국사상사학회, 2003

민병학 · 연명모, 「삼봉 정도전의 ‘재상중심정치’에 관한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15(1),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1998

박홍규 · 방상근, 「정도전(鄭道傳)의 ‘재상주의론’ 재검토」, 『대한정치학회보』 15(3), 대한정치학회, 2008

설준영, 「정도전의 배불론과 재상 중심 정치체제에 대한 해석」, 『인문과 예술』 1, 인문예술연구소, 2014

신정근, 「유교 지식인의 ‘사회’ 개선의 의의」, 『동양철학연구』 26, 동양철학연구회, 2001

- 윤사순, 「정도전 성리학의 특징과 그 평가」, 『진단학보』 50, 진단학회, 1980
- 이원석, 「『맹자』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도전의 이해」, 『태동고전연구』 3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6
- 이중서, 「고려말의 신분 질서와 왕조 교체기 정도전의 역할」, 『역사와현실』 112, 한국역사연구회, 2019
- 이진명, 「방효유 유학사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22
- 정성식, 「麗末鮮初의 歷史的 轉換과 性理學的 對應에 관한 研究: 鄭圃隱과 鄭三峯의 思想的 特性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6
- 정재훈, 「정도전 연구의 회고와 새로운 사상사적 모색」, 『한국사상사학』 28, 한국사상사학회, 2007

Jeong Do-jeon's Political thought of Checks and Balances by Legislation

Shin, Jeong-keun

Confucian scholars try to realize their ideals by finding what is lacking and distorted in reality. Individuals can realize this ideal through cultivation and communities through politics. In Jeong Do-jeon's view, *Goryeo* dynasty lacked too much in reality, but this situation could not be solved. Because of this, people were suffering that they didn't have to go through. Jeong Do-jeon wanted to realize this in a new country, that is, *Joseon*, by setting the life of humanity, public control of legislation, and mutual checks and balances of consultation and opposition as ideals. *Joseon* is a unique country in terms of both one country and world history. This is because the founding leaders of *Joseon* not only won the competition and took supremacy, but also wanted to a blueprint and create a country accordingly. In this respect, *Joseon* can be said to be a "planned state" like the "planned city" of today. Jeong Do-jeon's *Joseon Gyeonggukjeon* 朝鮮經國典 and *Gyeongjemungam* 經濟文鑑 can be said to be design drawing with a list of practices to establish a new country. Jeong Do-jeon drew a picture of the "state of Confucian culture" and found a historical challenge to realize it in reality. *Joseon* can be said to be a Confucian state of the civilian government 文治 where humanity, legislation, and mutual checks and balances work. It can be said to be the realization of Confucian ideal politics (君臣共治 or 君臣分治) in which monarchs and servants manage state affairs together/sharing.

Key Words : Jeong Do-jeon 鄭道傳, humanity 仁, legislation 立法, mutual checks and balances, the co-rule of a monarch and a servant 君臣分治

